

이탈리아, 외출금지령에 범죄 급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 범죄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이탈리아 내무부가 전날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범죄 건수는 5만2천5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건수(14만6천762건) 대비 64% 감소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성폭력이 69%, 절도가 67.4%, 강도가 54.4% 각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가운데 주택 침입 절도는 72.5% 급감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부터 식료품·의약품 등의 구매나 출·퇴근과 같은 업무상 이유 등을 제외한 외출을 일절 금지하는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것은 약국을 겨냥한 절도와 강도 건수 역시 다소 줄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8%, 24.6%의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등 각종 개인 방역 장비를 노린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 이동제한령으로 이탈리아에서 범죄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동 통제 단속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

가운데 가정 폭력 역시 43.6% 줄었고, 마약 범죄도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4일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면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징역 2년에서 5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감염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3천 유로(약 3,3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중국,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전면 입국 제한에 들어갔다. 입국제한에는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포함됐다.

지난 2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이민 관리국은 전날 밤 11시 무렵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중국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중국을 떠났던 외국인들은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려졌다."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

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29일부터 적용됐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언제까지 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터키, 이스탄불 운하 건설 사업 본격 착수

터키 정부가 이스탄불 운하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터키 교통부는 지난 26일 이스탄불 운하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이스탄불 운하 구간에 속하는 다리 2곳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스탄불 운하는 마르마라해와 흑해 사이에 총연장 45km, 폭 400m 규모로 인공 수로를 만드는 대역사로, 완성되면 현재의 자연적인 바닷길인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서쪽으로 30~4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 이스탄불 신공항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로 불리며, 터키 건설업계에서는 이스탄불 운하 사업의 규모를 약 160억 달러로 추산한다.

터키 정부는 현재의 보스포루스해협 물동량을 이스탄불운하로 돌려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주변 지역 개발 이익도 챙기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스포루스해협의 환경 보호도 운하 건설 명분으로 제시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동안 운하건설에 걸림돌이 된 재원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거나 건설·운영 후 양도 양도(BOT·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터키 리라화 급락 사태와 맞물려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가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면서 이스탄불 운하 건설은 난항을 겪었다.

차기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에크렘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때 운하에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스탄불 운하의 준공 예상 시기는 터키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이다.

가나 세무 & 보험

GANA TAX & INSURANCE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보험고객에게는 세금수수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beachgana@gmail.com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O) 714.827.0707
(C)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